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 2/24(수) ⑥ 누가복음 15-18장

1-8장 그리스도인의 품격

1-2장 기쁨의 노래로
3-5장 놀라움에 사로잡혀
6-8장 오직 믿음으로

9-18장 그리스도인의 체험

9-11장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12-14장 진리를 알려주시는
▶ 15-18장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와 만난 사람들

19-24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19-21장 차가운 머리로
22-24장 뜨거운 가슴으로

Before 줄치며 읽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누구인지
표시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After 묵상하기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마 7:3-4, 눅 6:41).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남을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들보를 빼기까지 밝히 볼 수 없습니다
(마 7:5, 눅 6:42).

허나, 위선적인 사람들의 정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눅 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찾으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일백이라는 ‘전체’를 완성할 수 있는 퍼즐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죄인입니다(마 9:13, 막 2:17, 눅 5:32). 바로, ‘나’ 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롬 5:8).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죄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7:37-50).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드리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18:13-14).

주님의 시선은 ‘한’ 죄인에게,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참고도서

HOW주석
IVP성경배경주석
LAB주석
WBC주석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통성경 길라잡이
하루만에 꿰뚫는 성경관통

‘하나’의 무게와 ‘아흔아홉’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양우리 안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의 안전에 비교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의 가치가 ‘아흔아홉’에게는 아무런 상관이나 존재가치가 없는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어깨에 메고, 양 떼로 돌아와 기뻐하십니다.

한 가정주부는 자신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자 친구들을 불러 기쁨을 나눕니다(15:8-9).
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로 ‘아들’로서의 명예를 인정합니다(15:22-24).
귀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여럿이 함께 불완전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서로서로 실족케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17:1).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일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한 후 주님과 마주하기보다 차라리
연자뱃들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하십니다(17:2).
형벌이 엄중합니다. 끔찍한 죽음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는 중대하고 무겁습니다(마 5:29-30).

작은 자 중의 ‘하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눈여겨보십시오.

만일 지금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시 51:9).’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겔 18:21-22, 30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